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6호 [국제 제25665호] 주재 106 (2017)년 6월 5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7》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7》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김원홍동지, 리영길동지, 조남진동지, 조정철동지, 김광혁동지, 손철주동지가 맞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비행장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 있었으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군이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항일의 7련대, 전화의 근위부대가 되자!》, 《모두다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 전법에 정통하자!》,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라는 구호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7》이라는 글씨가 세워져 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를 시찰하시였다.

경기대회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은 불변불후의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적항



을 새기였으며 추격기들이 기교비행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이 여러가지 기교비행동작들을 잘 수행한다고, 멋있다고, 과학적인 조종과 완벽한 비행술을 남김없이 펼쳐 보여주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김광혁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의 뒤를 이어 사단장, 여단장들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에 날아올라 타격목표소멸, 비행장상공 초저공비행 및 상승회전, 착륙 등을 멋들어지게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협곡항로를 따라 30m 초저공비행을 진행하다가 도약하여 불의에 목표를 타격하는데 실전에 절실히 필요한 비행술이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부르며 제일먼저 날을 수 있게 준비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깊이 새기고 정시에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고있는것이 알린다고, 특히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의 비행술이 대단히 높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지심을 울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멘트 불출기를 쏘으며 대지를 박차고 구름속을 뚫고 만리대공으로 솟구쳐오른 권대장들과 젊은 비행사들도 쌍거리, 습격, 30m 초저공비행 및 쌍기 상승회전, 자유공중전투비행, 착륙 등을 훌륭히 진행하였다.

경기에 참가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안고 정시에 만마태운 비행술과 무지비한 타격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만리대공에 멀찍이 비행운을 자랑스럽게 새겨가게끔 보면서 관람자들은 일련한 축하의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2 번 으 로 계 속

공군강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려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던져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뜻이 손들 지어 답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김광혁 항공군상장이 개회사를 하시였다.

그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7》은 모든 비행지휘성원들을 명령만 내리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맨 앞장에서 출격하여 적항공모함을 비롯한 그 어떤 대상물들도 일격에 소멸해버릴수 있는 일당백의 불사조들로 든든히 준비시키고 전군을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준비완성

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뜻깊은 훈련경기라고 언급하시였다.

그러면서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이 되는 력사의 날에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진군한 항일혁명선열들이 보천보의 밤하늘에 혁명의 횃불을 지펴올린것처럼 남녘해방의 그날 가증스러운 원수들의 머리에 불을 지르고 최후승리의 전격로를 제일먼저 개척해나갈 용감무쌍한 김정은비행대의 전투적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7》의 개최를 선언하시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가 주악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석단앞에 정렬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에게 출격명령을 내리시고 감시소에 오르시여 경기대회를 지도하시였다.

경기대회는 사단장, 여단장조, 추격기, 폭격기, 습격기면대장조, 경수습기, 직승기, 교육기면대장조, 비행사양성기관을 갖 줄일한 젊은 비행사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경기대회순위는 리륙, 습격, 초저공 및 회전, 요격비행, 자유공중전투, 착륙 등을 판정요소로 정하고 각종 감시기재로 평가한 점수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경기대회의 시작과 함께 경비행기들이 당기와 최고사령관기를 창공높이 날리며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비행운

